

“국내 최대 요리경연부터 먹거리 체험까지”
NS홈쇼핑, 10월 20일 ‘NS 쿡페스트’ 개최

NS홈쇼핑이 10월 20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NS 쿡페스트’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요리경연인 미식경연을 비롯해 미래의 식문화와 식품산업을 들여다보는 미식투어, 하림의 신선한 정육과 식품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미식로드 등 풍성한 먹거리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식문화축제도.

메인 행사인 미식경연은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주제로 본선 진출자 100팀(2인 1팀)이 대상 상금 3000만 원, 총 상금 1억1500만 원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친다. 미식경연 서류접수는 9월 1~19일이다.

조항목 NS홈쇼핑 대표는 “농수축산업 발전과 식품산업 발전에 힘써온 ‘NS 쿡페스트’가 2년 만에 식품 산업의 메카 전북 익산에서 열린다”며 “이번 행사가 공유주방을 통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미래와 로컬푸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NS홈쇼핑은 27일 경기 판교 소재 본사 별관에서 ‘제2회 패션뮤즈 선발대회’를 연다. 이를 통해 새로운 패션 PB(자체브랜드) 상품과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패션크리에이터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상하목장, 유기농주스 ‘사과블루베리케일’ 출시



매일유업 상하목장이 유기농주스 ‘사과블루베리케일’(사진)을 내놓았다. 자연 그대로의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사과에 강원도 유기농 케일을 더해 과일과 야채의 다양한 영양소를 그대로 담았다. 또 설량 대신 유기농 저지방 우유를 넣어 과일과 야채의 맛을 보다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존 사과딸기케일, 사과오렌지케일과 함께 3종 라인업을 완성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대장암’
정기 대장내시경 검사·용종 제거 중요

대장암은 위암과 국내 암 발병률 1, 2위를 다투는 암종이다. 대장암의 경우 초기 발병 과정에서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병기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비로소 설사 및 변비, 혈변, 소화불량, 복부 통증, 복부 팽만감, 체중감소, 만성 피로 등을 겪는다.

따라서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대장내시경 검사가 바람직하다. 평소 배변 시 출혈이나 만성 설사를 경험하는 경우, 배변 습관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 및 대장염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등은 주기적 검사가 권장된다.

특히 용종 발생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용종은 대장 내부 점막 일부가 돌출하여 나타난 돌기 모양의 조직으로 선종성 용종, 염증성 용종, 증식성 용종, 과오종 등의 유형이 있다. 만약 선종성 용종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전문의 상담을 거쳐 이를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양성인 증식성 용종 등과 달리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성 용종이 악성종양으로 분화하면 대장의 내장을 막으며 주변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나아가 림프, 혈액을 통해 간,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대장내시경을 통해 선종성 용종을 조기에 발견해 용종제거술로 즉시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 추가 용종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년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재실시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원외과 이동원 원장



치솟는 환율에 고물가·고금리 악순환

원·달러 환율 폭등에 유학생·해외여행객 ‘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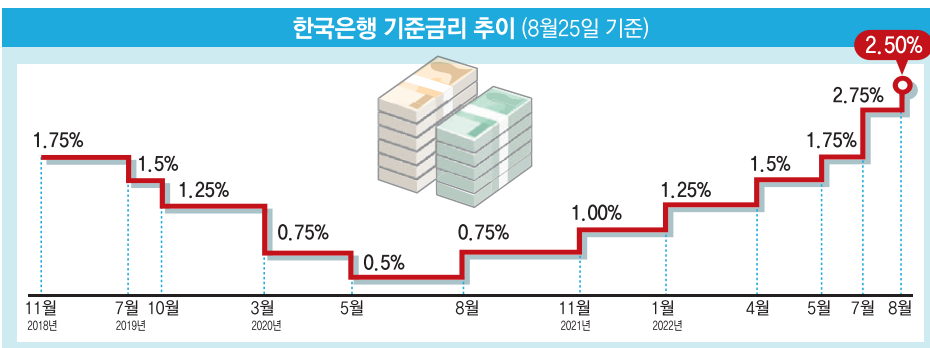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성 발언에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40원 대에 압박하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이 치솟은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다.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25일 원·달러 환율은 1335.20원에 마감했다. 23일 기록한 연고점인 1345.2원보다 하락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향후 1350원을 넘어 1400원 돌파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美,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시사
향후 1400원 돌파까지 염두에 두어야
유학생들, 현지 생활비 부담 커져
한은, 물가억제 위해 기준금리 인상

●한숨 깊어지는 유학생들

달러화의 초강세는 이미 6, 7월에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7월 회의록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긴축 통화정책을 재강조하는 등 9월 FOMC 회의에서도 또 한번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에서 강한 긴축 기조의 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와 함께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335.20원으로 마감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악순환으로 인해 실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전광판에 표시된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진 데 이어, 중국 위안화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사용 국가 유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 탓에 현지 생활비 부담이 커져 쉼없이 줄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져온 돈도 떨어져 가는데, 출국 전에 환전을 좀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예전보다 지출액이 늘었다. 당분간 장도 보지 말아야겠다”는 게시글과 함께 우대 환율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공유도 엿볼 수 있다.

치솟는 환율로 해외여행 포기자도 늘었다. 미국여행을 준비하던 한 대학생은 “미국 물가가 싸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까지 올라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워 여행을 포기했다”고 아쉬워했다.

●실물 경제 경고등 ‘우려’

장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기에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즉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물가상승 억제제를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p 인상했다. 이미 4월, 5월, 7월 회의에서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벌어진 환율 급등과도 연관이 있다. 지난해 미국 연준 FOMC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금리가 역전됐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외국인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 하락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번 상승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0%가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연 2.25~2.50%와 상단 기준으로 같은 수준이 됐다.

또한 기준금리 상승은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끌어다 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 및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고, 기업투자와 소비의 위축을 야기한다. 결국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악순환으로 인해 실물 경제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점쳐진다.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들이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가는 흐름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81p(1.22%) 오른 2477.26, 코스닥은 14.23p(1.79%) 오른 807.37에 마감했지만, 지난주 초까지 안도렐리를 이어오며 2530선 위로 치솟았던 때와는 기류가 바뀌었다는 게 증시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BMW·르노·포르쉐 등 외제차 48개 차종 2만6449대 제작결함 리콜

BMW, 528i 등 화재 가능성 확인돼
르노 MASTER,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만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8i 등 29개 차종 1만8522대는 ब्ल로우바이히터(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돼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530i 등 9개 차종 38대(판매 이전)는 좌석 및 좌석 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ASTER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8i(사진) 등 29개 차종 1만8522대는 ब्ल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돼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R(마스터) 3279대(판매 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추후 보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타이칸

2480대(판매 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판

매 이전 포함)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부식되고, 차량 진단시스템이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높은 고도, 추운 날씨 등 특정 조건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한국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1490대는 조속성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속성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업데이트·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성렬 기자 sereno@donga.com

홈플러스 강서점, 메가푸드마켓 10호점으로 리뉴얼 오픈

홈플러스가 25일 본사 사육이 소재한 강서점을 메가푸드마켓 10호점(사진)으로 리뉴얼 오픈했다. 식품매장을 강화하고, 오직 강서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먹거리를 확대했다. 신선매장에 시즌별 당

도선별 과일과 유명산지 과일을 만날 수 있는 과일 팝업샵을 오픈하고, 베이커리 몽블랑제에 갈로리는 낫과 식감이 뛰어난 건강빵을 늘린 게 대표적이다. 또 전점 평균 대비 20~34세 거주자가 3% 가



량 많고, 프리미엄 고객 비중이 7% 높은 점을 고려해 트렌디하면서도 편안한 쇼핑 공간으로 구성했다. 특히 매대 높이를 낮춰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고객이 상품 위치와 동선 파악을 쉽게 하도록 했다. 상품은 브랜드·유형별로 모음 진열하고 구역마다 새로운 콘셉트를 적용했다.